30년 정통 증권맨… 밸류업·ESG 기반 '초대형 IB' 도전

CEO 리서치 엄 주 성 키움증권 대표

"임기 내 수익 다변화, MZ세대 니즈 충족 통한 미래세대 고객 확보, 지속적 사회공헌 등을 통해 질적 성장을 이루어 나갈 생각입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올해 1월 취임 후 엄격한 리스크 관리와 더불어 공격적인 수익성 다변화로 지난해 차액결제거래(CFD)·영풍제지 미수금 사태로 생긴 '내부통제 부실'이란 불명예를 털어내고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다. 이제 그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진입에 속도를 내며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 리스크 관리 전문가… 키움증권 '구원투수'

키움증권은 지난해 CFD사태 등으로 인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엄주성 대표가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시장 흐름을 잘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에 탁월한 전문가인 엄 대표는 리테일, 기업금융, 전략기획 등의 실무 분야는 물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30년 정통 증권맨이다.

리테일, 기업금융 등 실무 경험 풍부
조직개편 통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IB 활성화 역점… 부동산 등 수익↑

엄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리스크 강화에 방점을 두고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전사 리스크관리 TF를 팀으로 승격시켜 리테일비즈(Biz)분석팀을 신설했고 감사운영본부에 감사기획팀을 새로 꾸려 현업·리스크·감사부문 3중 통제체계도 구축했다.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에 더해 신용 리스크 발생 징후를 보이는 종목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해 지난 4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유통주식 수, 가격 변동률 등 여러 수치를 분석해 신용리스크를 점수화하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을 비롯해 타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결과 등도 통합했다.

이외에도 종목 증거금률도 다양화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증거금률 50%, 60% 등도 추가해 리스크 관리를 촘촘하게 시행하고 있다.

엄 대표는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탄탄히 구축한 데 이어 수입원 다각화를 위해 약점으로 꼽혔던 IB 부문의 활성화에 역점을 두었다.

키움증권은 기존 브로커리지(주식 위탁매매) 등 리테일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해 온 증권사다. 브로커리지 사업의 경우 증시 거래대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수익성 다변화가 무엇보다 절실했다.

엄 대표는 IB 조직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 이를 기업금융부문으로 격상시켰다. 산하에 기업금융본부, 커버리지본부, M&A금융본부를 배치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담당하는 구조화금융본부도 구조화금융부문으로 승격시켰다.

이러한 조직개편의 성과가 올들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올해 2월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2500억원을 투자한 데 이어 부산 범어동 개발사업과 롯데건설 조성 PF 펀드에 대한 투융자를 진행했다. 2분기에는 신길5동 지역주택사업, 홈플러스 부지 개발, 수원시 권선구 주택재개발 단지 사업 등에 참여하면서 825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올렸다. 부동산 부문 투자 확대에 따라 키움증권은 상반기 IB에서 수수료 수익으로 1111억원을 벌었다. 이는 전년 동기 495억원보다 124.2%나 급증한 수준이다.

상장사 최초 밸류업 계획 공시
1사1교 금융교육 등 ESG 활동 강화
AI 적극 활용… 연내 '키우Me' 출시

이밖에도 키움증권은 코셈, 피앤에스미캐닉스의 기업공개(IPO)와 상장을 주관했고 MBK파트너스의 지오영 인수금융, 어펄마캐피탈의 세아FS 인수금융 리파이낸싱 등을 주선했다. 채권자본시장(DCM) 부문에서 키움증권은 대한항공, 우리금융지주, 두산그룹, 롯데그룹, 한진그룹, 현대카드 등의 딜에 참여했다.

이같은 수익 다변화로 인해 키움증권은 올 상반기 연결기준 당기순이익 477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2%의 증가세를 보였다.

◆주주친화·ESG 활동 강화… "AI, 투자 접목"

엄주성 대표는 양호한 실적을 이끌어낸 데 이어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발맞춰 기업 가치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지난 5월 상장사 최초로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면서 3개년 중기 목표로 ▲자기자본이익률(ROE) 15% 이상 ▲주주환원율 30%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이상을 제시했다.

아울러 엄 대표는 ESG 경영 강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SG 활동을 통해 질적 성장 기반인 무형의 가치를 확보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사내카페에 기부 키오스크 설치, 1사1교 금융교육, 국내재무전공 박사과정 연구원 후원, 종이컵 대신 리유저블 컵 사용, 페이퍼리스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ESG경영 실천에 나서고 있다.

또한 엄 대표는 취임 후 신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인공지능(AI)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사업전략 총괄인 전략기획부문 산하에 AI 전담팀인 'AIX팀'을 신설하고 MTS에서 활용할 AI 자산관리(WM) 챗봇 서비스 '키우Me'를 오는 12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엄 대표는 "키움증권은 AI와 투자를 접목해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적절한 투자 성향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고객별 맞춤 금융상품 플랫폼을 만들면 편의성, 저렴한 수수료, 질 좋은 투자정보를 제공해 리테일 경쟁력 확대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키움증권은 리테일 경쟁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공을 들여온 해외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에 싱가포르 자산운용사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향후 북미, 동남아시아 등으로 글로벌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엄 대표의 리더십으로 실적증가세에 탄력을 더하고 내부통제 이슈도 제거한 가운데 연내 초대형 IB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올 2분기에 자기자본 4조6347억원을 달성해 이미 초대형 IB 신청 기준인 4조원을 훌쩍 넘긴 상태다. 키움증권이 초대형 IB 인가를 받게 되면 국내 6번째 초대형 IB 업체로 자리 잡게 된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키움증권 전경 /키움증권

행복을 품은 도시, 미래를 여는 기장
제18회
차성문화제
2024. 10. 12(토) - 13(일)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일원
동해남부선 좌천역 셔틀버스 수시 운행 (9시 30분 ~ 행사종료시까지)

12일
11:00 기장군민 걷기대회
14:25 입장 퍼레이드
14:45 식전공연 '영남 성주소리 보존회'
15:00 개막식
15:30 기장군민 화합한마당
19:00 최백호 밴드의 낭만콘서트 시즌2
20:00 기장 열린음악회
싸군, 미미로즈, KCM, 거미

13일
15:00 기장군민 예술한마당
16:30 나는 MZ다!
18:30 아이넷TV 스타쇼 녹화
남 진, 현 숙, 김성환
유지나, 한 봄, 류지광
두 리, 하이량, 에닉스

부대행사
· 제18회 기장예술제 12일~13일
· 2024 기장도자기축제 12일~13일
· 거리공연(버스킹ZONE) 운영 12일~13일
· 차성 한글백일장 13일(일) 10:00
· 차성 그림그리기대회 13일(일) 10:00
· 기장군 씨름왕대회 13일(일) 11:00
· 특산물 먹거리장터 & 마켓, 프리마켓, 푸드트럭

체험행사
· 기장역사체험관 / 해병대홍보 및 체험관
· 로봇이 만드는 차성 솜사탕 / 고래 썬캐처 만들기
· 차성 인생네컷 / 에어바운스 / 바다석고 방향제
· 연만들기 & 떡메치기 체험 / 타올인형 만들기
· LED 캐릭터 / 캐리커쳐 / 캘리그라피
· 씨글라스업싸이클링(반지, 지비츠만들기)
· 나만의 토퍼 만들기 / 감정오일테라피 외

최백호 거미 KCM 에닉스 남진 현숙 김성환 유지나 한봄 류지광 두리

주관 차성문화제추진위원회 후원 기장군 기장군의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기장문화원 협찬 한국수력원자력(주) 고리원자력본부 성우하이텍 신세계부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농협 농협중앙회 기장수협 대선주조